

## 영성지도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에 관한 정신역동적 분석: 저항, 전이를 중심으로

김미희

성공회대학교 영성신학 박사과정

1. 서론
2. 영성지도에서의 관계성에 관한 쟁점
3. 영성지도에서의 저항 (Resistance)
  - 3.1. 영성지도에서의 저항의 특성
  - 3.2. 영성지도에서의 저항의 분류
    - 3.2.1. 하나님께 대한 저항
    - 3.2.2. 영성지도자와 영성지도에 대한 저항
4. 영성지도에서의 전이 (Transference)
  - 4.1.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의 특성
  - 4.2.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의 분류
    - 4.2.1. 전이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 4.2.2. 전이의 대상으로서의 영성지도자
5. 결론

## 1. 서론

영성지도는 ‘관계성(relationships)’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통해, 피지도자가 하느님께 가졌던 미해결된 감정과 의식을 변환시킴으로써 ‘관계의 심화와 확장’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배리(William Barry)와 윌리엄 코놀리(William Connolly)는 다음과 같이 영성지도를 정의하고 있다.

영성지도란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개인적으로 의사전달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의사 전달하시는 하느님께 응답하며, 하느님과의 친교를 깊게 하고, 그 관계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영성지도는 개념이 아니라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신앙 체험, 즉 하느님이라 불리는 신비스러운 대상에 대한 어떤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sup>

그들은 영성지도는 하느님과 피지도자, 그리고 영성지도자로 이루어진 삼자 간의 관계 안에서의 치유과정이며, 영성지도 과정에서 주된 관계는 하느님과 피지도자와의 관계이고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와 동행함으로써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관계의 역동성이 영성지도의 근간을 이루며 그 관계의 중심에 신뢰가 있을 때,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와 하느님, 그리고 피지도자와 영성지도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왜냐하면 피지도자가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발을 던지게 되는 과정은, 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함께 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그 여정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관계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두 대상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저항하기 때문이다.<sup>3)</sup>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따르는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혼란을 두려워하며, 관계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

1) 윌리엄 배리-윌리엄 코놀리, 『영적지도의 실제』, 김창재, 김선숙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5), 20.  
2)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성지도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성지도로 범위의 한계를 둔다.  
3) Ibid., 101.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태도와 방식으로 저항함으로써 기존의 안정된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변화의 방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계의 변화는 더 성숙하고 풍부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관계가 긴장과 불안 속에 있게 되거나 깊어지지 않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런 존스(Alan Jones)는 하느님과 관계에서 자신이 더욱 하느님을 갈망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하느님 안으로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sup>4)</sup> 제닛 러핑(Janet Ruffing) 또한, 우리 대부분은 영적체험의 영향으로부터 회피할 뿐만 아니라 더 당황스럽게는 우리가 갈망한다고 말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피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5)</sup> 하느님과 친밀함과 신뢰 관계로의 초대는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지도자는 자기상의 보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피지도자는 하느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어질 것들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부모로부터 유래된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 전이 등 다양한 감정들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베너(David Benner)는, 인간은 전 존재로 하느님을 열망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다가갈 때 다른 대상들과 관계할 때처럼 하느님과 관계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은 베너의 주장을 제임스 존스(James Jones)의 언급으로 다시 환언해 보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전이는 상호작용과 의미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이의 패턴들 및 사회적인 태도와 정서들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과정은 피지도자에게 너무나 위협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지도자는 하느님의 시각으로부터 초점을 잃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피지도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되며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관계로부터 회피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가 하느님께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동행하게

4) Alan W. Jones, *Exploring Spiritual Direction*,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 1999), 13.

5) Janet K. Ruffing, *Spiritual Direction: Beyond the Beginning*, (NewYork/Mahwah: Paulist Press, 2000), 33-34.

6) 데이비드 베너, 『거룩한 사랑에 눈뜨다』, 노종문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160.

7) 제임스 존스, 『현대정신분석학과 종교: 전이와 초월』, 유영권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01.

된다. 그러나 그 동행의 여부 또한 피지도자가 영성지도자에게 느끼는 친밀감과 신뢰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깊은 영적 갈망과 영혼의 심오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나누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누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대상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하느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들을 이야기하겠는가?

피지도자들은 영성지도자에게 자신의 영혼의 심오한 비밀들을 풀어놓을 때, 자신을 가리고 있던 방어와 겉옷들을 내려놓고 상처입기 쉬운 위태로움을 가슴에 품은 채 영성지도자 앞에 서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지도자들은 움츠러들어 무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sup>8)</sup>

상기한 바와 같이 영성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 피지도자가 안전함을 느끼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게 된다. 영성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감정들의 상호작용 안에서 피지도자가 영성지도자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역시 모든 대상 관계에서 관계가 성숙되어가는 패턴과 비슷한 과정이 될 것이며, 피지도자가 과거의 다른 중요한 대상들이나 하느님과과의 관계 안에서 보였던 다양한 방식의 방어는 영성지도자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성지도가 관계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심리치료의 관계<sup>9)</sup>에서처럼 영성지도 과정 안에서도 성령, 피지도자, 그리고 영성지도자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성지도 안에서도 역동적인 관계성에서 도출되어지는 저항, 전이와 같은 정신역동적인 관계적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영성지도 안에서 정

8) 프랜시스 네벡(Francis K.Nemeck)과 마리 콤스(Marie T. Coombs)는 본문에 제시한 상황들이외에 피지도자가 영성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저항을 나타낼 때의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rancis K. Nemeck, Marie T. Coombs, *The Way of Spiritual Direction*,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3), 72-76.

9) ‘도움을 주는 관계(helping relationship)에서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심리치료의 경우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성’은 초기 정신분석에서부터 현대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를 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조명, 분석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치료동맹, 저항, 전이, 역전이의 개념들은 정신분석에서 치료적 관계성을 대표하는 요소들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관계성에 토대를 두고 관계이론(Relational Psychoanalysis)이나 상호주관주의(Intersubjectivity Theory), 정신화(Mentalization) 등과 같은 현대정신분석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

10) 배라코놀리, 『영성지도의 실제』 ; 이만홍, 『영성치유』, (서울: 한국영성치유연구소, 2006); 제럴드 메이, 『영성지도와 상담』, 노종문 옮김, (서울: IVF, 2006); Anne W. Silver, *Trustworthy Connections*:

신역동적 관계성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대상들 간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된다.

영성지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영성지도에서 역동성들이 발현되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피지도자와 하느님간의 관계, 그리고 피지도자와 영성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동들이 영성지도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영성지도자 자신 역시 관계성의 역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 문제일 수 있다. “영성지도는 영성지도자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성지도자가 현존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sup>11)</sup>는 프랭크 후덱(Frank J. Houdeck)의 언급처럼 영성지도자가 현존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피지도자의 반응은 영성지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역동적 특성들을 주목해야할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영성지도의 목적 즉, 영성지도를 통해 피지도자는 하느님과 더 깊고 명백하며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영성지도자는 그 발전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과정을 막는 장애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영성지도에서의 관계성에 관한 쟁점

그동안 영성지도에 있어 관계성과 관련된 주제가 논의의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즉, 영성지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 전이 등을 도출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영성지도 안에서도 저항, 전이와

---

*Interpersonal Issues in Spiritual Direction*,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s, 2004); Chester P. Michael, *An Introduction to Spiritual Direction: A Psychological Approach for Directors and Directees*, (NewYork/Mahwah: Paulist Press, 2004); Jane Wilkinson, “Resistance in Pastors to Spiritual Direction”, *A Project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iritual Director's Training Programme of Spiritual Growth Ministries*. (On-line판); Jeannie Cochrane, “Spiritual Abuse” *A Project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iritual Director's Training Programme of Spiritual Growth Ministries*. (On-line판); Mary R. Bumpus, Rebecca B. Langer, *Supervision of Spiritual Directors: Engaging in Holy Mystery*, (London: morehouse, 2005); Maureen Conroy, *Looking into the Well; Supervision of Spiritual Directors*,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95).

11) Frank J. Houdeck, *Guided by the spirit: A Jesuit Perspective on Spiritual Direction*, (Chicago: Loyola Press, 1996), 147.

같은 관계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영성지도의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특히 영성지도에서 관계성과 관련된 쟁점은 영성지도자에 대한 ‘피지도자의 전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카렌 레백츠(Karen Lebacqz)와 조셉 드리스킬(Joseph D. Driskill)은 영성지도자에 대한 전이와 같은 관계의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적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성지도에서는 회기 내에서 피지도자들의 상처나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둘째,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의 만남의 빈도가 심리치료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셋째, 영성지도 과정에서는 역기능적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며 넷째, 피지도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다섯째, 대상을 향한 감정들이 인간인 영성지도자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이며 여섯째, 영성지도에서는 영성지도자가 피지도자를 만날 때 현실관계에 근거해서 피지도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이가 발생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sup>13)</sup> 실제로 수많은 영성지도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영성지도 과정 내에서의 영성지도자의 역할의 역동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영성지도자를 지도과정 안에서 배경처럼 존재하면서 단지 하느님과 피지도자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관계성의 역동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영성지도자들의 의견에 대해 이만홍과 렌 스페리(Len Sperry), 재닛 러핑의 경우,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영성지도자들이 지나친 낙

12) 서구에서는 영성지도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도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져 온 국내 연구에서 영성지도를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다룬 주제들은 ‘영성지도 안에서 살펴본 하나님 체험의 중요성’, ‘정신의학과 영성: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와 영성지도의 통합’, ‘영성지도와 목회상담: 상담관계를 통한 영적성숙’, ‘영혼 돌봄에 기반을 두는 목회상담: 영성지도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상담’, ‘기독교영성상담: 기독교(목회)상담과 영성지도의 통합적 모델’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영성지도와 심리치료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부족하지만, ‘영성지도의 관계성’이나 ‘관계성에 토대를 두고 실제 사례들을 다루는 과정’ 또는 그 관계성을 ‘정신 역동적으로 분석해내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13) Anne W. Silver, *Trustworthy Connections: Interpersonal Issues in Spiritual Dire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s, 2004), 57.

14) 관계성에서 배제되어있는 대상으로서 영성지도자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기존에 영성지도와 관련된 저서들에서 볼렀던 영성지도자들의 호칭-‘도구(instrument)’, ‘산파(midwife)’, ‘촉진자(facilitator)’-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칭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성지도자의 현존 모습에 대한 중요성에는 동의가 되지만, 더 나아가 영성지도자의 현존의 모습을 관계성 안에서도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관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만홍은, 영성지도에서도 심리치료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신비롭고 카리스마적인 영성지도자의 이미지로 인해 전이가 더 증폭되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Ruffing 또한, 그녀 자신이 15년 동안 영성지도자들에 대해 슈퍼비전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 즉, 영성지도자들이 피지도자들의 전이적 반응에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피지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과정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성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sup>16)</sup> 실제로도 영성지도에서의 관계성이 가지는 역동성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피지도자가 느끼게 되는 초기 유아기 때 부모와의 대상관계 패턴으로부터 도출된 하느님에 대한 전이나 영성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전이, 성애적 전이, 하느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영성지도자에 대한 전이 등 영성지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피지도자의 전이적 상황이 피지도자와 영성지도자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지도자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영성지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수 없이 많지만, 영성지도에서의 전이뿐만 아니라 관계성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움직임들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 실정은, 영성지도의 본질적인 특성이 관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배리와 코놀리는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의 성장을 도와주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지도자를 만나게 되지만, 이들은 서로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패턴 외에 영성지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피지도자의 내적갈등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저항으로 나타나 피지도자의 성장을 막게 되거나,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의 관계가 피지도자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영성지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7)</sup>

제럴드 메이(Gerald May)또한 영성지도 과정을 심리적 영역으로 환원하는 위험에 대

15) 이만홍, 『영성 치유』, 76-77.

16) Janet K. Ruffing, *Spiritual Direction: Beyond the Beginning*, (NewYork/Mahwah: Paulist Press, 2000), 162.

17) 배리·코놀리, 『영적지도의 실제』, 184.

해 언급하면서도, 영성지도를 받으러 오는 피지도자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영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마음과 영을 분리시켜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하느님과 피지도자와의 관계성이나 피지도자와 영성지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 전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sup>18)</sup> 앤 실버(Anne W. Silver)의 경우 영성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느님께서 진정한 영성지도자로서 영성지도의 중심에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영성지도 과정에서 보이는 대상들은 인간들이며, 이 과정에서 영성지도자들과 피지도자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할 때처럼 관계의 역동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9)</sup> 토머스 홀든(Thomas M. Holden) 역시 수 많은 영성지도 이론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영성지도 과정 내에서의 영성지도자의 역할을 부인하면서 단지 하느님과 피지도자간의 관계에서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신이 영성지도 경험 안에서 직접 체험했던 과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그 이론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sup>20)</sup>

### 3. 영성지도에서의 저항 (Resistance)

#### 3.1. 영성지도에서의 저항의 특성

영성지도에서도 영적, 심리적 성숙에 저항하는 심리적 방어현상인 저항이 발생하며, 이러한 저항은 하느님과 피지도자 간의 친밀한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성지도에서의 저항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원초적인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라고 말한다.<sup>21)</sup>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죄인

18) 메이, 『영성지도와 상담』, 35.

19) Silver, *Trustworthy Connections*, xv.

20) Thomas M. Holden, "A Therapist's View of Spiritual Direction: A Case Study",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Register*, 73(1983, 3), 10-11.

21) 윌리엄 배리는 하느님께 대해 저항하는 원인 중,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수치감과 그로 인해 숨고 싶은 마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William A. Barry,

인 자신과 예수님과과의 공존을 견디지 못한 채, 완전하신 선행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이다. 인간 누구나 하나님을 직면해서는 이러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마크 맥민(Mark McMinn)은 신학자 에드윈 잭리슨(Edwin Zackrisson)의 언급 즉, “신학적으로 볼 때 죄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복잡한 관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단순히 우리의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죄는 우리의 존재 근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조건이다.”<sup>22)</sup>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죄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원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픈 마음 때문에 항상 저항하고 도망친다.

인간은 죄라는 유혹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순례자이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항하고 회피하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다가선다.

### 3.2. 영성지도에서의 저항의 분류

영성지도에서 나타나는 저항은 ‘하나님께 대한 저항’과 ‘영성지도자와 영성지도에 대한 저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2.1. 하나님께 대한 저항

##### 1)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일어나는 자기상의 위협으로 인한 저항

인간은 성적 위협이나 공격적 위협에 자기상을 보존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하듯이 영적인 위협에서도 자기상을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다. 체럴드 메이는 자기상은 ‘정체성’의 결정적 부분으로 대상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자기상의 강도, 자기상의 질, 자기상의 중요도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저항하려는 힘으로 작용하며, 이는 영적인 성장과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

“Transference, Resistance and the Drama of the Exercises”, *The Way*, 42(2003, 7), 57-68.

22) 마크 R. 맥민,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상담』, 채규만 옮김, (서울: 두란노, 2006), 155.

로 심리적인 저항을 넘어서서 자기상이 약화되어져 간다면 영혼은 진정한 실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된다.<sup>23)</sup>

### 2)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아-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한 저항

윌리엄 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의 장애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아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24)</sup> 즉,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자신이 느끼는 성적 충동, 느낌, 욕구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불손하다는 생각에 기도 중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회피해 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것과 같은 요인들 이외에도, 통제 불가능하며, 변함없고 냉정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저항을 느낄 수 있다.<sup>25)</sup>

### 3) 침묵과 관련된 저항

기도할 때 ‘침묵’의 어려움과 함께 분심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은 때때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자체에 대한 방어로 분심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서 일어나는 위협적인 생각이나 충동, 감정들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로 분심이 이용될 수도 있다.<sup>26)</sup> 메리 범퍼스(Mary R. Bumpus)와 레베카 랭거(Rebecca B. Langer)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침묵을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경험했던 ‘타임아웃’(Time-Out)과 같은 처벌로 생각하면서 침묵에 대한 저항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다른 한편으로 기도를 휘방하는 외부의 힘들이나 영의 움직임으로 인한 분심으로 침묵이 어려워짐으로써 기도에 대한 저항을 경험할 수 있다.

23) 제럴드 메이, 『영혼의 어두운 밤』, 신선명, 신현복 옮김, (서울: 아침영성지도 연구원, 2006), 92-100.

24) William A. Barry, *With an Everlasting Love: Develop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New York: Paulist Press, 1999), 39-112.

25) 배라:코놀리, 『영적지도의 실제』, 112.

26) 메이, 『영성지도와 상담』, 121-122.

27) Bumpus, Langer, *Supervision of Spiritual Directors*, 54.

#### 4)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구체화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저항

피지도자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느님께서 피지도자를 영적인 성숙과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과정으로 인도되어 불행해질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 5) 익숙한 방법의 기도를 지향하면서 기도의 체험을 통제하려는 저항

하느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인해 그동안 피지도자가 지속해왔던 기도방식이 변화되어질 때, 그 과정에서 피지도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낯설어하거나, 기도 안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으로 느끼게 되면서 기도의 과정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재닛 러핑은 습관적인 기도방법으로 인한 저항 중 침묵기도와 관련된 저항을 설명하고 있다.<sup>28)</sup> 피지도자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느님 현존에 머무는 기도에 집중한 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체험을 느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지도자는 기도 안에서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건조하거나 지루했던 것으로 기도체험을 나누게 된다. 실제로 피지도자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것들에 대해 다루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자체를 다루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하게 성화된 언어에만 집중하면서 하느님의 체험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피지도자가 기도 안에서 체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에 대한 방어로 인식될 수 있다.

#### 6) 기도하는 과정 중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으로부터 연유되는 저항

피지도자는 기도과정 중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첫째, 어두운 밤(Dark Night)과 같이 하느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둘째, 상실이나 죽음, 가족의 질환이나 고통, 우울 등의 삶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셋째, 개인적인 문제-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께 덜 집중하게 되거나 하느님에 대한 표현되지 않는 분노나 실망, 부적절한 행동에 연루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이다.<sup>29)</sup>

---

28) Ruffing, *Spiritual Direction*, 39-40.

이와 같이 피지도자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들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는 인식으로 인해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지도자는 기도가 무미건조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자신의 삶에서도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예전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모호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피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체험하게 되거나 그로 인한 분노와 실망 등을 솔직히 나눌 수 없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미루거나 기도 안에서 인내하면서 머무는 것에 대한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 7)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저항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제럴드 메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신경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경우 신경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sup>30)</sup>

### 3.2.2. 영성지도자와 영성지도에 대한 저항

#### 1) 영성지도자의 태도나 현존하는 모습에 대한 피지도자의 저항

제넷 러핑은 피지도자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영성지도자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1)</sup> 피지도자들은 영성지도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느낄 경우, 하나님 체험과 그 반응들을 나누기를 꺼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영성지도자가 자신의 삶으로 인해 너무 지치거나 고통스러워 피지도자와 함께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지도자들은 영성지도자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 때때로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가 상호적으

29) Sue Pickering, *Spiritual Direction: A Practical introduction*, (Norwich: Canterbury Press, 2008), 182.

30) 메이, 『영성지도와 상담』, 119-120.

31) Ruffing, *Spiritual Direction*, 44.

로 선호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영성지도자가 피지도자의 저항들을 탐색하는 시기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영성지도자가 비언어적 메시지로 피지도자가 나누는 주제를 다룰 수 없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로 인해 피지도자들은 저항을 나타내게 될 수 있다.

## 2) 영성지도자에 대한 전이로 인한 저항<sup>32)</sup>

윌리엄 배리와 윌리엄 코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영성지도자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피지도자의 기도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다.<sup>33)</sup>

## 3) 영성지도자의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로 인한 저항

영성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 이슈나 치유되지 않은 영역들을 안고 영성지도 과정에 임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피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영성지도자의 내적 감정 중 자유롭지 않은 부분(unfreedom), 취약성(Vulnerability), 상처(Brokenness)가 건드려질 때 역전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지도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경우 영성지도자는 구원자로서 그 앞에 서고 싶어 할 수 있으며, 피지도자가 하나님과 다른 대상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에 자유롭지 못한 영성지도자가 피지도자의 분노의 강렬함을 무시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피지도자가 매일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지 않을 경우,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영성지도자의 경우 자신의 성향대로 수련자를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영성지도자는 거울역동(Mirroring Dynamics)으로 인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 거울역동이란, 영성지도자의 삶이나 내적 체험이 피지도자의 내면적, 외부적 갈등에 의해 ‘반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지도자가 피지도자와 유사한 개인적 이슈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수련자가 자신의 체험을 나눌 때 이에 대해 더 강렬

32) 영성지도자에 대한 전이로 인해 피지도자가 저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전이 저항(transference resistance)이라고 한다. 전이 저항은 정신분석적 용어으로써 ‘정신분석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저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항 중에 가장 큰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리치료에서처럼 영성지도에서도 영성지도자에 대한 전이로 인해 피지도자가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 전이 저항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챕터인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33) 배리·코놀리, 『영적지도의 실제』, 186.

한 내적 반응을 느끼게 되거나 피지도자가 나누고자 하는 체험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성지도자의 역전으로 인해 영성지도자는 피지도자와 함께 현존하는 것에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지도자들이 영성지도자와의 관계나 영성지도 과정에 대해 저항을 갖게 될 수 있다.

#### 4. 영성지도에서의 전이 (Transference)

##### 4.1.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의 특성

영성지도에서 바라보는 전이의 토대는, 이상적인 부모를 향한 전이의 끝에 하느님께서 계시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이로 인한 갈망은 오직 하느님밖에 충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의 극복’은 심리치료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성지도 과정에서도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피지도자들이 내면의 부모상을 영성지도자에게 전이적으로 대체시키거나 하느님 이미지를 영성지도자에게 대체시킴으로써 영성지도자에게서 전이를 충족하려 한다. 이와 같은 전이로 인해 영성지도자는 지나치게 이상화되고 과대평가되며, 피지도자의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지전능한 인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영성지도자는 하느님의 자리를 가리게 되면서 피지도자의 전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 특히 권위적인 영성지도자의 경우 전이적 반응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피지도자의 의존성을 좌우하지할 수 있게 되는데,<sup>34)</sup> 이러한 과정에서 피지도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초점을 잃은 채 환영으로 가득 찬 거짓된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sup>35)</sup>

34) 캐리 도링(Carrie Doehring)은 목회적 돌봄 관계에서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힘(powe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링은 힘은 관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힘의 역동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목사, 랍비, 부모 또는 선생의 위치에 있을 때는 힘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존재론적 힘의 차이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힘의 남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목회적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힘의 역동성과 관계적 경계선을 잘 살펴봐야 함을 제시한다. 캐리 도링,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 근대적 접근법』, 오오현, 정호영 옮김, (서울: 학지사, 2012), 49-50.

35)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자와 평신도간에서 또는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 발생하는 ‘성애적 전이’같은 과정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영성지도자와 피지도자 모두는 전이는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각 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독과 공허함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느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영성지도자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으로써, 피지도자가 영성지도자를 향해 오던 길을 돌려 하느님께 다시 초점을 맞춰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 진정으로 영성지도에서 전이를 극복하게 되는 것은, 전이 대상으로서 인간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 가는 여정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이를 다루는 영성지도자의 경우 자신이 피지도자의 궁극적인 전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좌절을 수용하면서, 성령 앞에 조아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 4.2. 영성지도에서의 전이의 분류

### 4.2.1. 전이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

전이의 대상으로서 하느님 이미지와 관련된 주제들은 애니 마리아 리주토(Ana-Maria Rizzuto)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리주토를 비롯한 도널드 위니캣(Donald W. Winnicott), 윌리엄 마이쓰너(William W. Meissner), 제임스 존스(James W. Jones), 모셰 스페로(Moshe H. Spero)와 같은 연구자들의 대상 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각각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상 표상을 하느님계로 전이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과정은 하느님과의 관계의 질과 강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6)</sup> 즉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 대상들에 대한 내적 표상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이과정이 영성지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이의 토대가 관계성에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피지도자가 초기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내적 표상들을 형성하였는가는 피지도자의 하느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이 과정은 하느님과 성숙한 대상관계를 형성, 발달시키는데 문제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지도자가 부정적인 부모상을 형성한 경우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인 전이로 인해 하느님

36) Moshe H. Spero, *Psychotherapy of the Religious Patients*, (London: Jason Aronson, 1996), 8-9.

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초기 대상들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경험했던 경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2.2. 전이의 대상으로서의 영성지도자

##### 1) 영성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전이

영성지도자는 종종 피지도자들이 갈망하는 영적인 모델을 상징한다. 피지도자들은 영성지도자가 기도로서 충만하며, 평온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현명한 영적인 권위의 모델로 인식한다. 또한 피지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영성지도자를 하느님과 융합시켜 바라보거나 그들의 영적인 친구로 인식하면서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종교적 기관이나 제도 등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성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전이를 형성시킬 수 있다. 피지도자들은 영성지도자를 대할 때 존경, 존중, 인정, 감사, 이상화와 같은 긍정적 전이를 형성시키거나, 권위에 대한 두려움, 분노, 공격성, 경쟁 등과 같은 부정적 전이를 형성할 수 있다.

##### 2) 영성지도자에 대한 하느님 전이

피지도자들은 하느님을 바라보듯 영성지도자를 바라보게 된다. 영성지도에서 내어놓는 피지도자들의 대화에 대한 영성지도자의 반응방식은, 피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이 그들의 삶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주 강렬한 거울전이(mirroring transference)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지도자를 위해 하느님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과정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성지도자의 반응은 피지도자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 즉, 공감을 보여주는 현존, 무조건적인 사랑, 피지도자를 존경하는 태도 등은 피지도자의 하느님과의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로 현존하지 못하거나 피지도자의 분노, 불안, 경직된 마음 등에 대해 함께 현존하지 못하는 과정은 피지도자와 하느님 간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

### 3) 영성지도자에 대한 성애적 전이

제럴드 메이는 영성지도에서 영적 진리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상황은, 피지도자가 성애적 전이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영성지도에서도 심리치료의 관계처럼 성적인 감정이 일어나며, 때로는 이런 감정들이 심리치료에서처럼 성애적으로 전이되거나 실제 성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첫째, 영성지도에서는 심리 치료적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취약한(vulnerability)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성적 본능이 친근감이나 애정과 같은 유사한 감정들과 결합되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의존성과 같은 무의식적 충동들을 성적으로 표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권력과 관련된 문제로써 권력이 성욕과 쉽게 결합되기 때문이며 넷째, 영적 각성과 영적 성숙이 성욕이 고조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다섯째,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갈망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상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으로써 자기상을 보호하려는 과정을 택하는 상황에서 성애적 전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7)</sup>

## 5.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심리치료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 전이와 같은 관계성의 역동성들이 영성지도의 관계성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의 역동들이 영성지도의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해보았다.

최근 들어 그리스도교 내에서 영성지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사역의 장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성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본 연구자가 영성지도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목하게 된 부분은, 모든 영성지도자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성지도자들이 하느님과 기도체험, 분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피지도자와 영성지도자 자신인 인간의 심층 의식 구조에 대한 이해와 영성지도의 토대가 되는 관계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져 온 영성지도에 대한 연구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고 인식된다.

---

37) 메이, 『영성지도와 상담』, 170-175.

물론 본 연구는 영성지도의 중심이 되는 하느님의 은총의 과정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결코 가둘 수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의 틀을 토대로 영성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역동성들을 분석하였지만, 그 토대가 되는 심리치료 영역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이클 클레이(Michael Clair)가 언급한대로 심리치료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인간의 지식으로 영성지도 과정을 분석하지만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실천적인 측면 모두와 관련되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느님과 관련된 신학적인 연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영역이지만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에 의해서 다양한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영성지도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움직임에 함께 발을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 영성지도자가 피지도자의 영혼의 친구로서 어떻게 현존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실제적인 논의들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들은 토머스 머튼(Thomas Merton)의 언급처럼,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써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춤을 추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인식되어 질 수 있다고 사려된다.

## 참고문헌

- 도링, 캐리(Doehring, Carrie), 『목회적 돌봄의 실제: 탈 근대적 접근법』, 오오현, 정호영 옮김, 서울: 학지사, 2012.
- 리주토, 애너 마리아(Rizzuto, Ana-Maria),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맥민, 마크(McMinn, Mark R.),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채규만 옮김, 서울: 두란노, 2006.
- 머튼, 토머스(Merton, Thomas), 『고독 속의 명상』, 장은영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09.
- 메이, 제랄드(May, Gerald), 『영성지도와 상담』, 노종문 옮김, 서울: IVF, 2006.
- \_\_\_\_\_, 『영혼의 어두운 밤』, 신선명, 신현복 옮김,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06.
- 문, 게리·베너, 데이비드(Moon, Gary W., Benner, David G.), 『영성지도, 심리치료, 목회상담 그리고 영혼의 돌봄』, 신현복 옮김,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11.
- 버클리, 수잔(Buckley, Suzanne M.), 『영적 지도와 영적 여정』, 권희순 옮김, 서울: 은성출판사, 2008.
- 베너, 데이비드(Benner, David G.), 『거룩한 사귄에 눈뜨다』, 노종문 옮김,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7.
- 베리, 윌리엄·코놀리, 윌리엄(Barry, William, Connolly, William), 『영적지도의 실제』, 김창재, 김선숙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5.
- 이만홍, 『영성치유』, 서울: 한국영성치유연구소, 2006.
- 존스, 제임스(Johnes, James W.), 『현대정신분석학과 종교: 전이와 초월』, 유영권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클레어, 마이클(St. Clair, Michael),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상관계이론과 종교』,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 Barry, William A., “Transference, Resistance and the Drama of the Exercises”, *The Way*, 42/3(2003).
- Benner, David G.,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8.

- Bumpus, Mary R.- Langer, Rebecca B., *Supervision of Spiritual Directors: Engaging in Holy Mystery*, London: morehouse, 2005.
- Conroy, Maureen, *The Discerning Heart: Discovering a Personal God*, Chicago: Loyola Press, 1993.
- \_\_\_\_\_, *Looking into the Well; Supervision of Spiritual Directors*. Chicago: Loyola Press, 1995.
- Holden. Thomas M., “A Therapist's View of Spiritual Direction: A Case Study”,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Register*, 73/3(1983).
- Houdeck. Frank J., *Guided by the spirit : A Jesuit Perspective on Spiritual Direction*. Chicago: Loyola Press, 1996.
- Jane Wilkinson, “Resistance in Pastors to Spiritual Direction”, *A Project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iritual Director's Training Programme of Spiritual Growth Ministries*. (On-line<sup>24</sup>).
- Jeannie Cochrane, “Spiritual Abuse” *A Project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piritual Director's Training Programme of Spiritual Growth Ministries*. (On-line<sup>24</sup>).
- Jones. Alan W., *Exploring spiritual Direction*, Boston: Cowley Publication, 1999.
- Meissner. William W.,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Michael. Chester P., *An Introduction to Spiritual Direction: A Psychological Approach for Directors and Directees*, New York/Mahwah: Paulist Press, 2004.
- Nemeck, Francis K.,-Coombs, Marie T., *The Way of Spiritual Direction*,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1985.
- Pickering, Sue, *Spiritual Direction: A Practical introduction*, Norwich: Canterbury Press, 2008.
- Ruffing, Janet K., *Spiritual Direction: Beyond the Beginning*, New York/Mahwah: Paulist Press, 2000.
- Silver. Anne W., *Trustworthy Connections: Interpersonal Issues in Spiritual Direction*, Cambridge,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s, 2004.
- Schwartz, Richard S., “A Psychiatrist's View of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the Pastoral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43/3(1989).

- Spero, Moshe H., "Transference as a Religious Phenomenon in Psychotherap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4/1(1985).
- \_\_\_\_\_, *Psychotherapy of the Religious Patients*, London: Jason Aronson,  
1996.
- Sperry, Len, "Integrating spiritual direction func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1(2003).

## 영성지도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에 관한 정신역동적 분석 : 저항, 전이를 중심으로

김미희

본 논문은 영성지도 상황에서 피지도자와 하느님, 그리고 피지도자와 영성지도자 사이에서 저항, 전이와 같은 관계의 역동성이 발현되며, 이러한 관계성의 역동들이 영성지도의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영성지도에서의 저항은 정신역동적 관점에서의 저항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 있는 원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원초적인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하느님에 대한 저항과 영성지도자 및 영성지도에 대한 저항으로 분류, 고찰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영성지도에서의 전이는 인간의 깊은 심층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갈망의 발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하느님에 대한 전이와 영성지도자에 대한 전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영성지도에서의 관계의 역동성들을 통해 성령, 피지도자와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는 영성지도자가 어떻게 현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주제어:** 영성지도, 관계성, 정신역동, 저항, 전이

**A Study on the Psychodynamic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in Spiritual Direction :  
Focused on Resistance and Transference**

Kim, Mi-Hee

This paper is to see relationship dynamics like resistance and transference that can be seen between the spiritual directee and God as well as between the spiritual directee and the spiritual director in the context of spiritual direction and these dynamics can obscure the purpose of spiritual direc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piritual direction relationships from a psychodynamic perspective. Methodologically, a literature review was used. This paper elucidates spiritual direction resistance can be seen as fundamental resistance to God since original sin is ingrained in the very core of human existence. This resistance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resistance to God and resistance to a spiritual director and spiritual direction. Transference may be seen as the manifestation of people's innate, original longing for God. The transference to God and the transference to a spiritual director were covered. In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s new light on the implications for how the spiritual director who accompanies the Holy Spirit and the spiritual directee should be present via the dynamics of relationships in spiritual direction.

**Key Words:** Spiritual Direction, Relationships, Psychodynamics, Resistance, Transference.

---

논문 투고일	2023년 2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3년 3월 31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7일

---